

Helping Our Brothers and Our Sister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August 31, 2023

Aloha MPC ‘Ohana,

It’s August 31,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Email Devotion.

The other day I was talking with a pastor friend of mine. He grew up in Kona, and he told me a story from his childhood.

It seems that one day when my friend was a boy, he happened to catch his brother doing something which was wrong. “I’m going to tell Mom,” my friend said to his brother, right before he turned and ran straight home to report to their mother.

And sure enough, when my friend’s brother got home that day, his mother was waiting to punish him for what he’d done.

But after she was done disciplining his brother, my friend was shocked when their mother turned next to him and punished him too.

“I don’t deserve this!” my friend protested. “He was the one who did wrong, not me!”

“No,” his mother corrected him. “You did wrong too,” she said to my friend, “because when you saw your brother getting himself in trouble, instead of trying to help him, you ran home to tell me how bad he was being. That was also wrong.”

Hearing my friend’s account of that story from his childhood, I thought of times when I had done similar things in my youth, hoping to get my kid sister in trouble too.

But beyond that, my friend’s story made me think of something else too. It made me think about religion, and here’s why. Over the years, I have met religious people from time to time who seem to be very focused (sometimes almost to the point of obsession) on the “wrong” things which they perceive someone else to be doing. “He is a sinner because he does thus-and-so,” or “She is a heretic because she believes this or that,” or even “I could never go to *that* church over there because I’ve heard such-and-such about them.” But that’s where it ends: with words (or thoughts) of condemnation, and nothing more.

For His part, Jesus was not indifferent to sin or disbelief. But He knew that genuine godliness was about *more* than just criticizing others for their faults and failings. Jesus knew that He was here to help people become their very best, redeemed selves by the grace of God, not just to condemn them when they fell short.

In fact, this is what the Bible is telling us when it says,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John 3:17). And it was also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when He called

out the self-righteous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saying,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sit in Moses’ seat... But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They tie up heavy loads and lay them on other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lift a finger to help” (see Matthew 23:1-4).

I don’t know about you, but I’ve started down a few bad roads at different times in my own life. And the people who helped me get back on track at those times weren’t the ones who offered nothing but judgment or criticism. It was the people who embodied grace and who loved me in spite of my mistakes and misdeeds, who were the ones that really helped me back onto the right path.

And so today, as I practice my religion, that’s the kind of Christian I want to be too: the kind who sees a sister or a brother in trouble, and who wants to help, not condemn, in the name of Jesus and His love. How about you?

Me ke aloha,
Pastor Ron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돕기: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8월 31일, 또 다른 목요일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어느 날 나는 목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코나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첫째가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그는 형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말할게요.” 내 친구가 동생에게 말했고, 동생은 돌아서서 엄마에게 보고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내 친구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동생을 징계한 후, 내 친구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에게 돌아서서 그에게도 벌을 주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내 친구가 항의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아니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정정했다.
그녀는 내 친구에게 “당신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형제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틀렸어.”
어린 시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어린 동생도 곤경에 빠뜨리기를 바라면서 비슷한 일을 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친구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종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일에 매우 집중하는(때로는 거의 집착할 정도까지)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러 저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또는 “그녀는 이것 _저것_ 을 믿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들에 대해.”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곳입니다. 정죄의 말 (또는 생각)과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나 불신앙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경건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패를 비판하는 _것 이상_ 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족할 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고 구속된 자아가 되도록 돕기 위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고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그 시대의 독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마태복음 23:1-4 참조).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내 인생의 여러 시기에 몇 가지 나쁜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은 판단이나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의 실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교를 실천하면서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곤경에 처한 자매나 형제를 보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이름으로 비난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

당신은 어떤가요?

알로하,
론 목사